



## 즐겁게 훈련하니 나도 좋네

9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축구국가대표팀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연습을 하자 디크 아드보카트 감독이 흐뭇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거닐고 있다. /연합뉴스

# ‘압박→1대1→수적우위’ 중원 장악하라

## 아드보카트, 토고전 필승 전략 마련

‘윗선부터 1차 프레싱(압박)→그 다음 1대1 싸움→만약 개인기에서 밀리면 수적 우위 확보’

아드보카트호 미드필더진의 토고전 필승 전략이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신·구 싸움닭’ 이을음(31·트라브존스포르)과 이호(22·울산 현대)의 입에서 튀어나온 총체적인 ‘압박 목표’이기도 하다.

디크 아드보카트 감독과 김 배어백 코치는 글래스고 마지막 훈련 당시에도 ‘프레싱’을

실재없이 외쳤다. 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독일 내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레버쿠젠 ‘바이아레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배어백 코치는 우리 말로 ‘압박’을 힘주어 말하기도 한다.

이는 지난 4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벌였던 가나와 평가전에서 태극전사들이 ‘값진 패배’의 경험을 통해 소중한 체득한 진리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배운 것인 만큼 몸에도 확실하게 됐다.

태극전사들 중에서도 중원을 책임지는 미

드필더들의 ‘압박 체감 지수’가 가장 높다.

만일 1대1 싸움에서 밀리면 그 다음 방법은 조직력으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 외에 왕도가 없다는 말이다. 처음엔 볼을 놓고 1대1로 맞서겠지만 순간적으로 2대1, 3대1로 숫자가 불어나면 제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더라도 지지선을 뚫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을음은 “윗선에서 먼저 프레싱을 가하는 게 상대 팀을 제압하는 지름길임을 절감했다”고 했다.

중앙 미드필더들이 2선에서 먼저 끊어주지 않으면 3선의 포백(4-back) 수비라인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호는 아드보카트 감독의 특별 지시사항도 전했다.

미드필드에서 경기를 장악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선이 무너지면 3선에서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막는’ 일이 벌어진다는 경고인 셈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 조직력 허점 메운다”

### 포백 호흡 맞추기에 집중

#### ■ 토고전 D-3 훈련 어떻게?

아드보카트호가 오는 13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 독일월드컵 본선 G조 조별리그 토고와 첫 경기를 치를 때까지 남은 훈련 기회는 하루 한 번씩 단 네 번 뿐이다.

세 차례는 독일 내 베이스캠프인 쾰른 인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 구장에서 탐금질을 하고 남은 한 번은 경기 전날 프랑크푸르트에 이동해 월드컵경기장(코메르츠방크 슈타디온)에서 소화할 공식 훈련이다.

평균적인 훈련 시간을 하루 1시간30분으로 잡았을 때 전열을 가다듬을 물리적인 시간은 겨우 6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디크 아드보카트 감독의 복안은 마지막 남은 1%의 조직력 허점을 메우는 데 맞춰져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초반부에는 선수들이 여러 패로 나뉘어 볼 뺏기를 하고 때로는 몸을 풀기 위해 대형을 맞춰서 앉은 고트비 코치의 지휘 아래 흥미를 돋구는 게임을 한다.

그 다음엔 그라운드를 반면부터 3분의 1, 4분의 1, 8분의 1면으로 좁혀가며 6대6, 4대4, 3대3 미니게임을 하는 식이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베스트 일레븐’이 실전에 출격했을 때 조직력의 허점을 최소화할 부분 전술을 미니게임 속에서 끊임없이 복기하고 있다.



## 월드컵 16강 “자 가는 거야”

월드컵 개막일인 9일 울산시 남구 옥동 남산초등학교 5학년5반 어린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응원구호를 적은 모형 공을 앞에 두고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드보카트호의 기본 전형을 4-3-3으로 놓고 볼 때 남은 기간 가다듬을 수 있는 전략.전술적 목표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모아진다. 김 배어백 코치는 실 새없이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안정환(두산베르디), 박주영(FC서울), 이천수(울산) 등이 전방에 섰을 때 정상각형 미드필더진과 측면 침투, 공간 활용, 2대1 유효패스 등으로 공세의 돌고리를 열어젖힐 ‘약속된 플레이’를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백(4-back) 수비진도 마찬가지다. 팀의 최고참이자 중앙 수비수인 최진철(전북)은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호흡이 완벽한 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월드컵 소식

### 박지성·이영표 ‘맞춤형 축구화’ 신는다

아드보카트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듀오 박지성(맨유)과 이영표(토트넘)가 태극기가 그려진 맞춤형 축구화를 신고 독일월드컵에 나선다.

박지성, 이영표의 개인후원 계약사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이들에게 특별히 제작된 축구화를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박지성의 축구화는 캥거루 가죽을 사용해 볼 터치 감각을 극대화시킨 제품으로 브라질의 호나우지뉴(FC바르셀로나)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선호하는 ‘티엘포 레전드’를 박지성의 발에 맞게 제작했다 특히 대표팀 유니폼 색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흰색 바탕에 붉은 선이 들어갔으며 신발끈을 묶는 부분에 이들의 영문 표기인 ‘J. S. PARK’이 새겨져 있고 뒤꿈치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이영표의 축구화는 ‘T90 수프리머시’를 맞춤 디자인 한 것으로 신발끈이 발 등 중앙이 아닌 측면에 있어 착용감과 볼을 찰 때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역시 흰색 바탕에 붉은 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뒤꿈치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옆면 한 쪽에는 이름 영문 표기와 소속팀 등번호인 ‘Y. P. LEE 16’이 다른 쪽에는 기독교 신자답게 ‘JESUS 16’이 새겨져 있다.



박지성과 이영표가 월드컵에서 신고 활약하게 될 ‘티엘포 레전드’(왼쪽)와 ‘T90 수프리머시’

### “1차전 이기면 16강 진출확률 87.5%”

#### USA 투데이

‘토고와 1차전을 이기면 16강진출 확률은 87.5%가 된다’ USA투데이가 9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 올린 기사에 따르면 최근 지난 1994년 미국월드컵에 이어 ‘98프랑스, 2002년 한일월드컵 등 세 차례의 월드컵 조별리그를 분석한 결과 1차전을 이긴 팀이 16강에 오를 확률이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이 ‘월드컵 팬 가이드’로 올린 기사를 보면 최근 세 번의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32차례 나

왔는데 이 가운데 무려 28팀이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1차전을 이기고도 16강에 오르지 못한 예는 32번 중 4번에 불과하다.

1차전을 비기면 16강 확률이 62.5%로 푹 떨어진다. 최근 세 차례 월드컵에서 무승부로 끝난 1차전은 총 12번 나왔는데 이 24개팀 가운데 15팀이 16강에 올라갔다. 한편 이 신문은 이번 월드컵 32개국 우승 확률도 함께 게재했는데 한국은 우승 확률 700대1로 트리니다드 토바고(900대1), 사우디 아라비아(1천대1)에만 앞서는 전체 30위로 평가됐다.

### 토고 “조제진 매우 위협적인 플레이어”

2006 독일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본선 첫 상대인 토고가 한국 대표팀 공격수 조제진(25·시미즈)에 대해 “매우 위협적인 플레이어”라고 평가했다.

토고의 축구 전문 매체 ‘몽디알토고’는 “조제진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을 4강으로 견인했던 안정환(30·두산 베르디) 못지 않게 무서운 속도로 급

성장하고 있는 ‘비밀 병기’라고 9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조제진이 “토고전에 기회가 주어진다”며 토고 골키퍼를 펼쳐 미드필더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움직임을 선보이고 싶다고 하면서 “나는 디크 아드보카트 감독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몽디알토고’는 전했다.

## 경기·성남·부천고 마운드 막강

### 무등기야구 전력 분석

#### 〈하〉 서울·경기·인천·강원권

약점이다. 에이스 정승훈은 경기운영과 위기관리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동고는 오른쪽 정통과 이경우, 사이드암 표경원이 마운드를 지키고 있다. 김경근(포수)-김영은(1루수)-정희준(3루수)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도 만만찮은 방망이를 뽐낸다.

4강까지 가는 길목에 눈에 띄는 강팀도 없어 상위권 성적이 기대된다. 배명고는 좌완 3인방이 배치된 마운드 가 감점이다.

#### ▲경기·인천·강원(6개팀)

인천야구의 대표주자인 동산고는 지난 해 청룡기를 우승한 명문팀이다. 하지만 류현진 등 주축선수들이 대거 졸업, 전력 이 크게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솔, 황건주, 임근섭 등이 선배들의 뒤를 이어 마운드를 이끌고 있다.

부천고는 잠수함 투수 김광복을 주축으로 김우식, 이재환으로 연결되는 막강 마운드를 앞세워 4강 진입을 자신하고 있고 인천고는 지역 예선에서 4할타를 뽑아낸 이진우-이태근-김범준으로 이어지는 방망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희명문 유신고는 윤태식, 장철희 등이 버티고 있는 타선이 돋보인다.

속초초고는 더 이상 강원도가 야구 불모지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는 패기로 본선에 나왔다.

마운드의 생두마차 이병철과 이성룡은 게임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노련하다. 타선에서는 유격수 최영진이 대표주자로 나선다. 정교한 타격이 일품인 최영진은 1학년때부터 팀을 리드해 온 간판이다.

원주고는 전국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적은 없지만 이번 무등기만큼은 에이스 조광국과 박태근 등을 필두로 최소 8강 이상의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